

# 2020년 신년사 및 공단 창립 19주년 기념사

사랑하는 공단 가족 여러분!

2020년 경자년(庚子年)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풍요와 희망, 기회의 상징인 “흰색 쥐”의 해에, 성실하고 부지런한 쥐의 기운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마다 널리 퍼져 건강과 행복이 넘쳐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들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땀 흘려 일한 결과, 우리 공단은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공기업 발전 유공 표창’ 2년 연속 수상과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그리고, 국민생활관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최우수 공공체육시설’에 선정되었으며, 하수처리장은 환경부로부터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 우수 사업장’에 선정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특히, 체육시설은 지난해 스포츠마케팅을 중점 추진한 결과, 대형 문화행사 집중 유치와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시설 활용도를 제고하였고, 교육청, 체육회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도 강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운영수입과 이용객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무지개복지공장의 장애인생산품 판매실적과 타슈 이용 실적 또한 전년에 비해 상승하는 등 전에 없이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고무적인 성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는 묵묵히 노력해 주신 직원 여러분들이 있어 가능했으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상생의 노사관계를 통해 공단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기문 노동조합 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임직원 여러분!

이처럼 지난해는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한 해였으나,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과 여건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지난해에는 하수처리장 이전 현대화 사업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 발표에 이어, 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 또한 시티즌프로축구단의 민간투자 결정에 따라, 하나금융축구단에서 운영키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동안 매년 안정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해 오던 우리 공단이 창립 이래로 가장 큰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였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사장으로서 무한한 사명감을 느끼고 있으며, 우리 공단이 당면한 어려움을 타개하고,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키기 위해 앞장 서겠습니다.

특히, 올 해는 공단 창립 19주년이 되는 중요한 시기로, 조직 변화의 터닝포인트로 삼고, 끊임없는 경영혁신과 업무개선을 통해 보다 경쟁력 있는 공단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중요한 한 해입니다.

2020년 새해 업무를 시작하면서, “효율 경영, 안전사고 제로, 시민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우수 공단으로 도약하기 위해, 올 한 해 중점 추진해야 할 몇 가지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 먼저, 경영지원처와 안전감사실은

사업 축소에 대비하여 중장기 인력운용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우리 공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만드는데 적극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실효성 있는 청렴시책 추진을 통해, 지난 해 3등급으로 하락된 공공기관 청렴도 등급이 만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준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이제는 2년 연속 다 등급의 불명예를 벗고, 경영평가 우수등급을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발체육시설처와 월드컵체육시설처는

지난해에 이어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체육시설 활성화 시책을 확대 추진하고, 이용료 인상에 걸 맞는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과 함께,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민원을 적극 해소하는 데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체육시설은 타 시설에 비해 민간이 상대적으로 진입하기 쉬운 분야입니다.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의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서의 강점을 살려, 민간이 할 수 없는 우리 공단만의 경쟁력 있는 공공체육시설로 가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 복지시설처는

외부의 우수한 복지시설을 적극 벤치마킹하여 고객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발굴 제공하고,

특히,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해 실시한 무지개복지공장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장애인생산품의 경쟁력 강화 시책을 추진하여, 전국 최고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시설처는

2021년부터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에 대비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하수처리장 운영방안 마련을 통한 하수처리 원가 개선과 악취 예방 노력에 만전을 기하는 등 2025년 하수처리장 이전시까지 안정적인 시설 운영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반시설처의

### 지하상가와 공동구는

지하에 위치해 있는 특성을 감안, 화재 등 각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여,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선진형 방재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라며,

### 공용자전거 타슈는

지속적인 경량형 자전거 확충과 함께, 결제방식 다양화, 대중교통 환승 시스템 구축 등 운영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진정한 시민의 발로써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 사랑하는 임직원 여러분!

우리 공단의 존재 목적은 공단 정관에도 잘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 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마음에 되새기고,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공단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원칙과 기본이 바로 선 공단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 받는 활력 있는 조직을 정착시켜 나가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꾸는 꿈은 꿈으로 끝나지만, 함께 꾸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는 말이 있습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저를 포함한 임직원 모두가 공단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다함께 노력합시다.

기쁨은 나누면 두 배로 커지고,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신년 새해에는 기쁨을 나누는 한 해로 점철되기를 바라며, 붉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2020년 새해 새아침을 힘차게 열어 나가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0년 1월 2일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설 동 승**